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회복의 지연(DELAY)과 산업기반의 붕괴 우려 확산

- ① 절대 수요(Demand) 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의 경기 부진 지속
- ②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의 후폭풍으로 연관 산업 타격
- ③ 생존에 급급한 산업계의 현실로 경제 내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 ④ 아시아 리스크(Asia risk)가 산업기반 붕괴의 단초로 작용할 우려 확산
- ⑤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 cyclical) 역할 기대

# 목 차

## ■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회복의 지연(DELAY)과 산업기반의 붕괴 우려 확산

Executive Summary .....	i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	1
2. 2016년 산업경기 전망의 전제 조건 .....	5
3. 2016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7
4. 2016년 산업 경기의 5대 특징 .....	9
5. 시사점 .....	15
【부록】 2016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동향 .....	19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주 원 이사대우 (juwon@hri.co.kr, 02-2072-6235)

【건설】 오준범 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ICT제조】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johnlee@hri.co.kr, 02-2072-6231)

□ 경제연구본부 : 【자동차】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02-2072-6237)

【철강】 김광석 선임연구원 (gskim@hri.co.kr, 02-2072-6215)

【유화】 안중기 선임연구원 (joonggiahn@hri.co.kr, 02-2072-6242)

【조선】 김천구 선임연구원 (ck1009@hri.co.kr, 02-2072-6211)

【기계】 조호정 연구위원 (chjss@hri.co.kr, 02-2072-6217)

## Executive Summary

### □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회복의 지연(DELAY)과 산업기반의 붕괴 우려 확산

#### ■ 2016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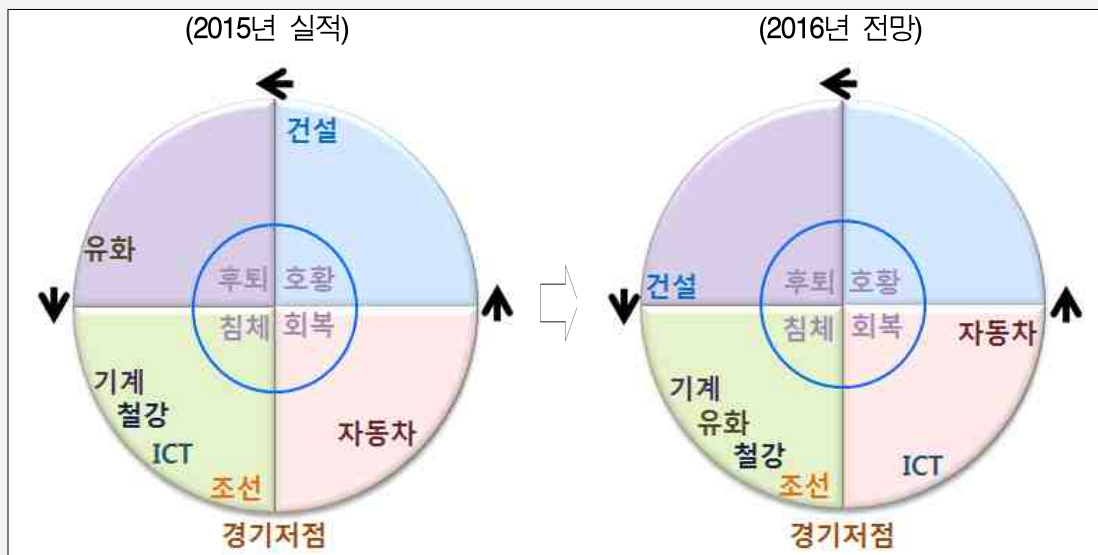
2016년 세계 및 국내 경제 모두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T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 경기는 불황 국면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 - 자동차, ICT)** 자동차산업은 수출이 미국 경기 회복 지속, 폭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고 내수도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판매 증가세가 이어갈 전망이다. ICT산업은 글로벌 수요 확대로 생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경기 불확실성 증가, 해외 업체와의 경쟁 심화, 신성장 품목 부재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후퇴 - 건설)** 건설업은 SOC 예산의 축소, 부동산 시장 공급 과다 등으로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 - 철강, 유화, 조선, 기계)** 철강산업은 2015년 수준 정도의 국내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불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은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수출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국내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내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조선업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선박 수주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 수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 및 수출이 정체되고 수입 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 2016년 산업 경기의 5대 특징

2016년 산업 경기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경기 회복의 지연(DELAY)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절대 수요(Demand) 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조업과 도소매업 재고율이 금융위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절대적인 수요 부족을 경험 중이다. 2016년에도 국내 및 세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내수 및 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 산업의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의 후폭풍으로 건설업의 전후방 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업은 2016년 토목(SOC) 수요 축소와 더불어 건축부문 초과공급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전반적인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관 산업이 침체되고 가계부채문제가 심화되어 실물과 금융 부문 모두가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산업계 전반이 생존에 급급하여 경제 내 리딩산업(Leading sector)이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화, 철강, 조선 등의 주력 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리딩산업이라 할 수 있는 ICT 및 자동차 산업도 한계가 표출되고 있다. 2016년에 들어서도 주력 산업들 대부분이 수요 부족에 따른 과잉생산 능력 문제와 더불어 경쟁력 고갈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리딩산업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아시아 리스크(Asia risk)가 산업기반 붕괴의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동남아시아간의 밀접한 국제분업관계를 고려해 볼 때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지역 전반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유화, 기계, 철강 등의 산업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제한적이지만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cyclical) 역할이 기대된다.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높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부문의 생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제 내 민간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경기 진작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 시사점

2016년 예상되는 산업경기 회복의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수 진작) 재정 및 통화 확대의 거시정책과 투자와 소비에 대한 직접적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미시정책을 병행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둘째, (외수 확보) FTA의 활용도 제고 및 한류 연계 수출 확대를 통해 외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 (건설업의 경기 급랭 방지)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외 수요 확보 노력 등을 통해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 산업화) 주력 산업의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의 조기 발굴 및 산업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대외 리스크 관리) 대외 리스크가 교역 및 금융 경로를 통해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여섯째, (재정 집행의 효과 극대화) 재정의 적시성 확보 및 집행도제고를 통해 공공 부문의 경기조절 능력을 높여야 한다.

##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 (1) 거시경제 동향

○ 2015년 3분기중 경제성장률이 반등하고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의 상승세가 유지됨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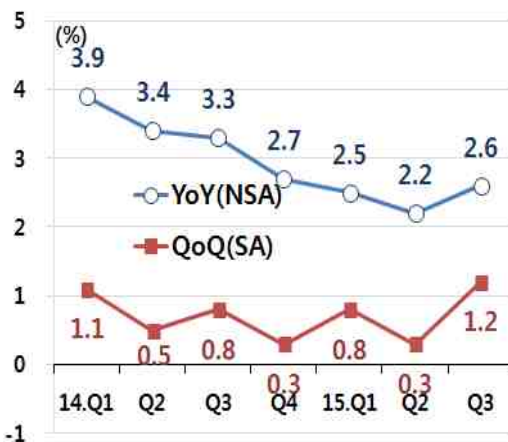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전년동기대비 2%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5년 3분기에는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4년 1분기를 고점으로 2015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었으나 3분기에 들어 반등함
- 전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2분기와 2014년 4분기(0.267%)에 0.3%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 3분기에 들어 1.2%로 상승함

-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각각 2015년 6월과 7월을 저점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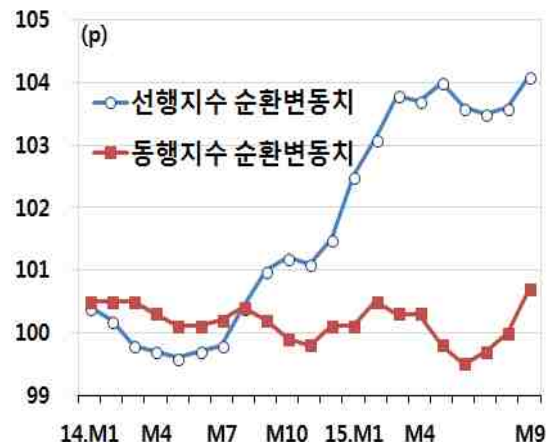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5년 8월 이후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모습임
-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5년 7월을 저점으로 2개월 연속 상승추세를 보임

<분기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 외수가 경제성장력을 잠식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3분기에 들어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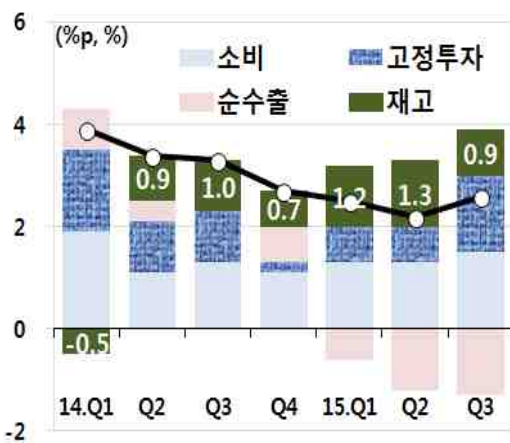
- 수요 부문별로는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기여도는 증가하는 모습

- 순수출(수출-수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15년 1분기  $\Delta 0.6\%p$ , 2분기  $\Delta 1.2\%p$ 에 이어 3분기에  $\Delta 1.3\%p$ 로 악화되는 모습임
- 소비와 고정투자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고의 기여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내수 회복의 신호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재고를 제외하면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함

-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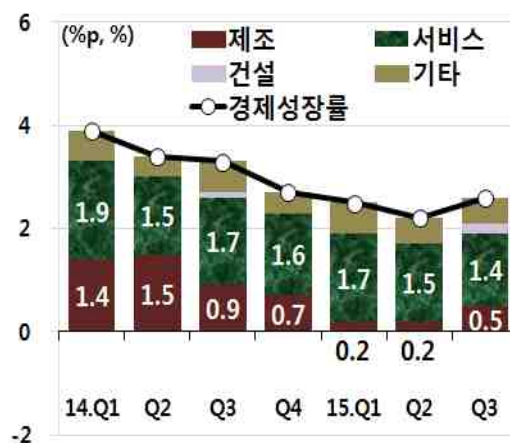
- 서비스업이 경제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으나 2015년에 들어 기여도가 점차 하락하는 모습임
-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는 2014년 분기 평균 1.1%p에서 2015년 상반기에 0.2%p로 급락하였으나 3분기에 들어 0.5%p로 상승함
- 특히 건설업 생산도 3분기에 들어 일정 부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수요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산업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2) 주요 산업 경기 동향

○ 실제 산업 단위의 경기 모습에서 제조업 생산 활동이 여전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출하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국면이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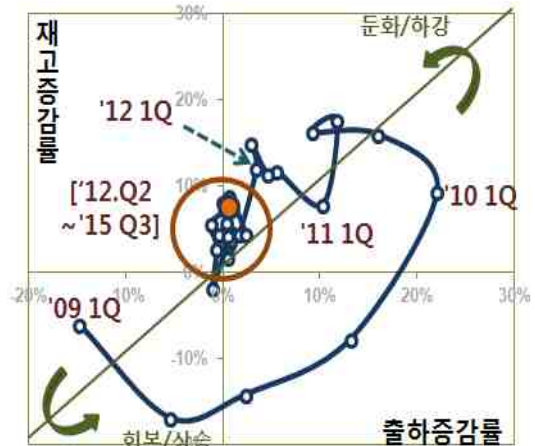
- 제조업 생산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가동률도 하락 추세를 지속
  -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014년 4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지속중임
  -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2014년 이후 장기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으나, 다만 2015년 3분기 74.6%로 2분기의 74.2%보다 소폭 상승함
  
-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여 있는 전형적인 수요 부진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중
  - 2012년 이후 재고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출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임
  - ※ 재고증감률-출하증감률 격차: '15년 Q1 3.5%p, Q2 6.9%p, Q3 6.8%p
  - 특히 이러한 재고증감률의 출하증감률 상회 현상(경기 부진 국면)은 2012년 2분기 이후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수요 부진에 따른 불황 고착화 가능성이 우려됨

<제조업 생산증감률 및 가동률>



자료 : 통계청.  
주 : 생산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제조업 재고-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 서비스업은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건축 부문이 상대적으로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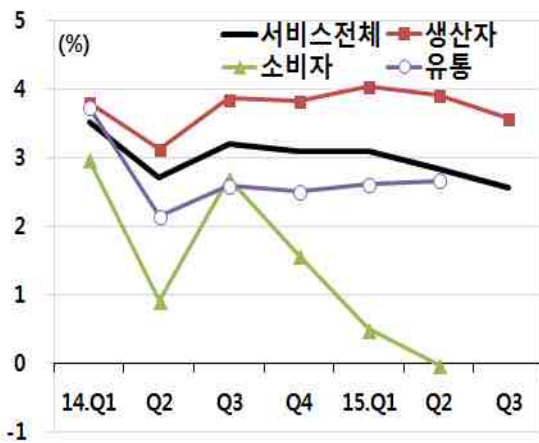
-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부문별로는 생산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호조

- 경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던 서비스업 부문도 한계에 직면하여 그 생산 증가세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다만 서비스업 내 부문별로는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반면, 음식·숙박, 문화 등의 소비자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은 전체 서비스업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그 격차도 확대중임

- 건설업은 토목 부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건축 부문이 반등하면서 건설기성액 증감률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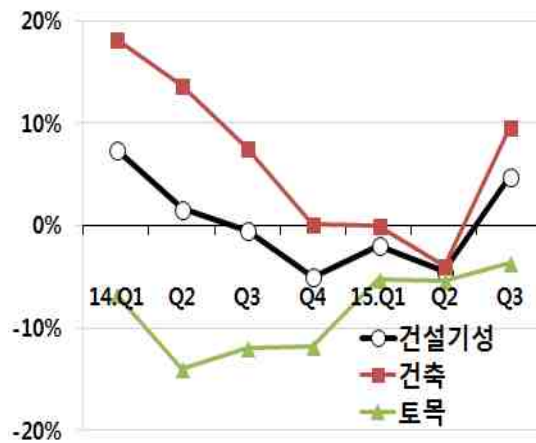
- 2014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의 생산 감소가 지속되었으나 2015년 3분기에 들어 건축 부문이 반등하면서 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됨
- 다만 토목 부문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규모 정부 사업이 일단락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중임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건설업 생산증감률(건설기성액)>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 2. 2016년 산업경기 전망의 전제 조건

### (1) 대외 경제 여건의 전제

- 2016년 세계 경제와 교역은 그동안의 침체에 대한 반등력이 작용하면서 개선세를 보이겠지만 그 속도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주요국의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2015년의 3%대 초반에서 3%대 중반으로 높아질 전망
  -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세가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존은 2015년 성장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 전망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인도가 강건한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감속, 브라질과 러시아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 2016년 세계 교역증가율은 완만한 세계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2015년의 3%대 초반에서 4% 초반으로 높아질 전망

#### < IMF의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전망 >

(%)

	2014	2015(E)	2016(E)	
			2015.10월 전망	2015.7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3.4	3.1	3.6	3.8
선진국	1.8	2.0	2.2	2.4
미 국	2.4	2.6	2.8	3.0
유로지역	0.9	1.5	1.6	1.7
일 본	△0.1	0.6	1.0	1.2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4.6	4.0	4.5	4.7
중 국	7.3	6.8	6.3	6.3
인 도	7.3	7.3	7.5	7.5
브 라 질	0.1	△3.0	△1.0	0.7
러 시 아	0.6	△3.8	△0.6	0.2
세계교역량증가율	3.3	3.2	4.1	4.4

자료 : IMF(2015년 10월) 「World Economic Outlook - Adjusting to Lower Commodity Prices」 .

(2) 국내 경제 여건의 전제<sup>1)</sup>

○ 2016년 국내 경제는 외형상 내·외수가 동반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2015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가 커 실질적인 회복 모멘텀은 취약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저유가 지속에 따르는 구매력 상승과 4년 연속(2012~2015년) 1% 대의 낮은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2%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
- 건설투자는 2015년 크게 증가한 수주 물량이 기성화되면서 생산 증가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및 국내 경기 리스크 요인에 따르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약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전년도 침체에 대한 반등효과 등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의 전환이 예상되지만, 핵심 수출 시장인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증가율 폭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구 분		2014	2015(E)	201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3	2.5	2.8
	민간소비 (%)	1.8	1.8	2.1
	건설투자 (%)	1.0	2.7	3.4
	설비투자 (%)	5.8	5.3	3.5
	지재투자(%)	4.6	3.2	4.1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892	1,090	1,110
	무역수지 (억 달러)	472	930	957
	수 출 (억 달러)	5,727	5,372	5,582
	(증가율, %)	(2.3)	(△6.2)	(3.9)
	수 입 (억 달러)	5,255	4,442	4,624
	(증가율, %)	(1.9)	(△15.5)	(4.1)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		1.3	0.6	1.2
실업률 (평균, %)		3.5	3.7	3.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10월)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경제주평 15-41(통권 662호).

1)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10월)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경제주평 15-41(통권 662호) 인용.

### 3. 2016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sup>2)</sup>

- 2016년 세계 및 국내 경제 모두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T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 경기는 불황 국면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회복) 자동차, ICT
  - 자동차산업: 수출은 미국 경기 회복 지속, 폭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고 내수도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판매 증가세는 이어갈 전망
  
  - ICT산업: 글로벌 수요 확대로 생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경기 불확실성 증가, 해외 업체와의 경쟁 심화, 신성장 품목 부재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 전망
  
- (후퇴) 건설
  - 건설업: SOC 예산의 축소, 부동산 시장 공급 과다 등으로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
  
- (불황) 철강, 유화, 조선, 기계
  - 철강산업: 2015년 수준 정도의 국내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불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산업: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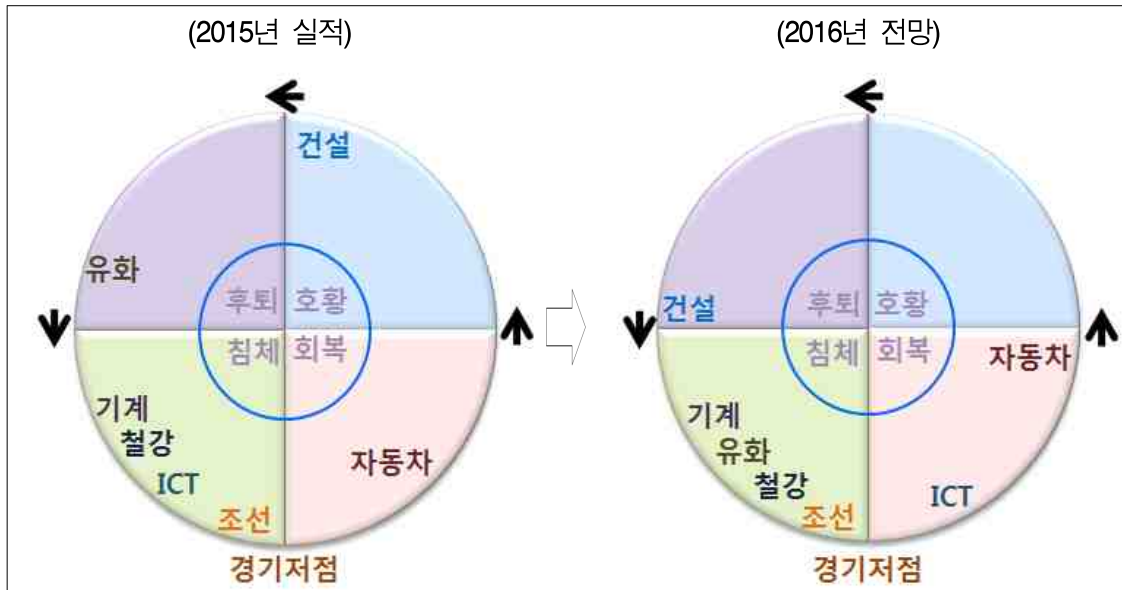
---

2) 자세한 산업별 경기 전망은 “【부록】 2016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을 참조.

수출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국내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내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조선업**: 선박 건조 시장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신규 수주와 수출 단가 등에서 침체 국면 지속이 예상
- **기계산업**: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 수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 및 수출이 정체되고 수입 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4. 2016년 산업 경기의 5대 특징

○ 2016년 산업 경기 특징의 키워드 : <b>회복의 지연(DELAY)</b> <sup>3)</sup>
① 절대 수요(Demand) 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의 경기 부진 지속
②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의 후폭풍으로 연관 산업 타격
③ 생존에 급급한 산업계의 현실로 경제 내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④ 아시아 리스크(Asia risk)가 산업기반 붕괴의 단초로 작용할 우려 확산
⑤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 cyclical) 역할 기대

##### ① 절대 수요(Demand) 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의 경기 부진 지속

○ 2016년에도 국내 및 해외 수요 모두 우리 산업의 생산여력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대부분 산업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제조업과 도소매업 재고율이 금융위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절대적인 수요 부족을 경험중

· 최근 제조업 재고율(출하지수/재고지수)<sup>4)</sup>과 도소매업 재고율(재고액/판매액)<sup>5)</sup>은 각각 130% 내외와 110%대로 모두 금융위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재고율이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생산량에 비해 출하량이 적어지는 수요 부진을 반영하고 있음

- 2016년에도 국내 및 세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수 및 외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부분 산업의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

· 2016년에는 대내외 수요가 소폭 증가하여 일정 부분 재고 조정(축소)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개선되는 속도가 미약하여 산업 경기를 진작시킬 정도

3) 'DELAY'는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에 사용되는 용어의 영문자를 모은 것으로 "대부분 산업들의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는 의미.

4) 제조업 재고율(출하지수/재고지수)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5) 도소매업 재고율(재고액/판매액) = 계절조정재고액지수 ÷ 계절조정판매액지수.

의 시장 수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제조업 및 도소매업 재고율>



자료 : 통계청.

<내수증가율 및 세계 수입증가율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IMF.

## ②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의 후폭풍으로 연관 산업 타격

○ 파급력이 큰 건설업 경기가 2016년에 토목부문 수요축소, 건축부문 초과공급의 이중고에 직면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불황을 전파할 우려가 존재

- 건설업은 2016년 토목(SOC) 수요 축소와 더불어 건축부문 초과공급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토목 부문은 정부가 2016년 SOC 예산을 전년대비 약 6% 축소할 계획임에 따라 현재의 산업 생산능력을 하회하는 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건축 부문은 2015년 건축허가면적 급증으로 2016년 이후 초과공급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시장 냉각, 미분양 증가 등이 우려됨

- 건설업의 전반적인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관산업의 침체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

- 건설업 경기 부진은 주요 후방산업군<sup>6)</sup>인 건설자재(시멘트, 철강구조물 등), 건설용기계, 건축·토목관련서비스 등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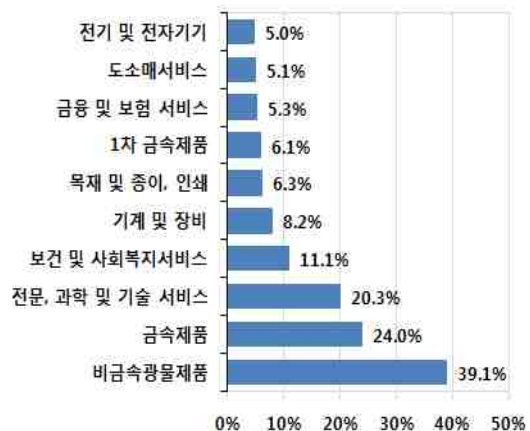
6) 한 산업의 산출물은 경제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와 중간수요(산업간 또는 기업간 거래를 말하며 다른 산업의 중간재 형태로 투입되는 부분을 말함)에 총당됨. 본 보고서에서는 후방(영향이 큰) 산업군을 해당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중간수요중에서 건설업으로 투입되는 중간수요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자체 정의함.

- 간접적으로는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금융·보험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건축 부문의 초과공급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시장의 경기 급랭으로 이어져 가계 부채 문제의 심화, 금융권의 대출 부실 증가의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음
  - 건축 부문 초과 공급은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키고 이는 수요 위축과 거래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그러한 기대가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 경로를 충족시킬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건축허가면적>



<건설업 주요 후방산업군의 건설업투입중간수요/중간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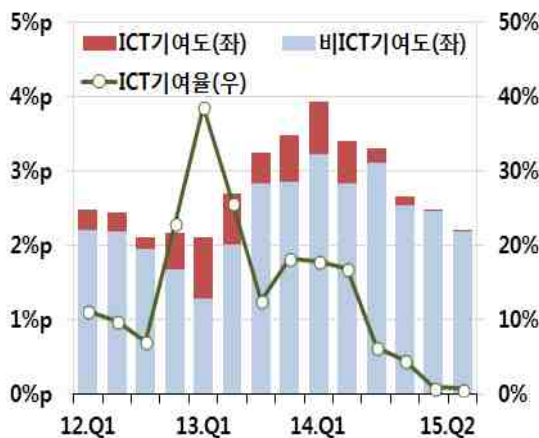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2015년 추정), 자료 : 2012 IO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③ 생존에 급급한 산업계의 현실로 경제 내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 주력 산업들 대부분이 생존에 급급할 것으로 보여 경제 내 뚜렷한 성장전인산업(리딩산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미 유화, 철강, 조선 등의 주력 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리딩산업이라 할 수 있는 IT 및 자동차 산업도 한계가 표출
  - 유화, 철강 등의 기초소재산업과 조선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급과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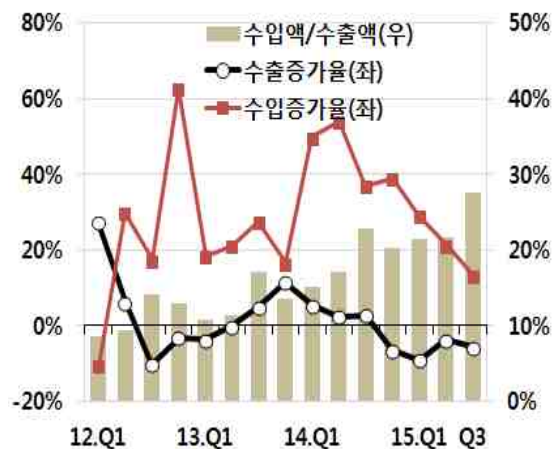
- 최근에는 경제의 발전과 혁신의 원천 역할을 했던 ICT 산업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경제성장률중 해당 산업의 기여분)도 미미한 상황임)
  - 나아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다고 평가되는 자동차 산업도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수요 부진 국면에 진입함
- 2016년에 들어서는 주력 산업들 대부분이 수요 부족에 따른 과잉생산능력 문제와 더불어 경쟁력 고갈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리딩 산업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산업계의 입장에서 2016년은 '확장'보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견인할 뚜렷한 리딩 산업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한국 ICT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



자료 : 국민계정을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 기여율 = 기여도/경제성장률.

<자동차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수입액/수출액 비율은 연구원 계산.

④ 아시아 리스크(Asia risk)가 산업기반 붕괴의 단초로 작용할 우려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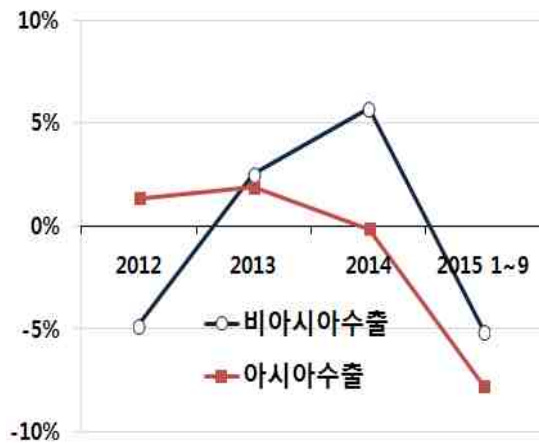
- 차이나 리스크가 아시아 리스크로 확산될 경우 아시아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집중될 우려가 존재

7) ICT산업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기여도/경제성장률)은 2000~2005년 연평균 15.8%에서 2006~2010년 21.4%, 2011~2014년 20.4%에 달하였으나 2015년 상반기에 들어 0.8%로 급락함. 자동차 산업 기여율도 2006~2010년 6.2%, 2011~2014년 4.2%, 2015년 들어서는 1% 내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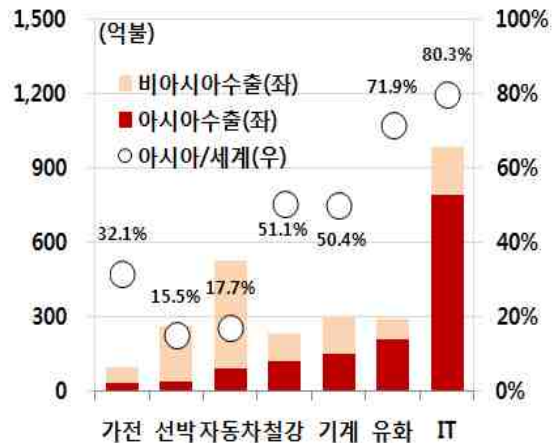
- 한·중·일, 동남아시아간의 밀접한 국제분업관계를 고려해 볼 때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지역 전반에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 중국의 저성장 기조 진입으로 인한 중국 내 구매력 약화, 중국의 수입대체 전략 강화 등으로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어려움이 진행중
  - 특히 최근 아시아 신흥국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급락이라는 트리플 쇼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sup>8)</sup>
- 이 경우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유화, 기계, 철강 등의 산업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우리나라의 대 아시아 수출이 아시아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보다 그 침체 강도가 더 큰 모습을 보임
  - 산업별로는 IT, 유화, 기계, 철강 등의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 위기 발생시 이들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대 아시아 및 비아시아 수출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아시아는 중동 제외.

<산업별<sup>9)</sup> 대 아시아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 아시아는 중동 제외.

8) 현대경제연구원(2015년 9월), “트리플 쇼크에 취약한 아시아 신흥 3개국 점검”, 경제주평, 15-36.

9) MTI코드 기준, 화학(21), 철강(61), 기계(71, 72, 73), 자동차(741), 선박(7461), 가전(82), IT(812, 813, 831, 8361).

⑤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 cyclical) 역할 기대

○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공공산업의 경기 조정적(countercyclical) 역할을 기대

-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높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부문의 생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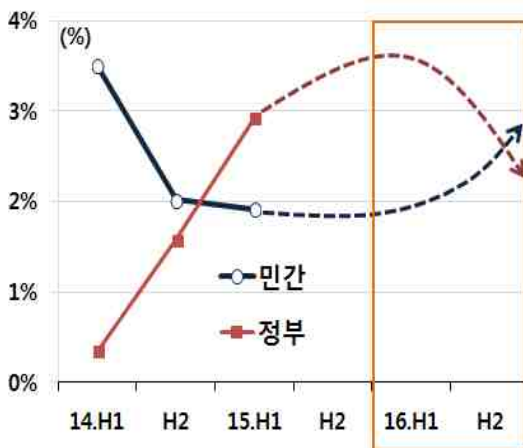
· 2016년 정부 부문의 수요가 2015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간 부문의 상저하고 경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중 집행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정부수요 비중이 높은 의료/보건, 토목, 비주거용 건물, 기타금속제품, 특장차 등의 산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과거와 달리 민간 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경기 진작 효과는 그 대상과 지속기간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공공 부문의 경기 진작 효과는 추세를 전환하거나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지는 못하고 침체 속도를 소폭 완화하는 데 국한될 것으로 예상됨

<민간 및 정부 수요 증가율>



<산업별 정부수요/총수요<sup>10)</sup> 비중>



자료 : 한국은행(실적), 현대경제연구원(추정).  
주 : 정부수요 = 정부소비 + 정부고정자본형성.

자료 : 2012 IO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10) 한 산업의 산출물은 최종수요와 중간수요로 구분되며 그 합을 총수요라 함. 여기서는 총수요중 정부소비지출과 정부고정자본형성 수요에 이용되는 부분이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5. 시사점

- 2016년 예상되는 산업경기의 회복의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 및 외수 확보, 건설업의 경기 급랭 방지, 주력산업의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 산업화, 대외 리스크 관리, 재정 집행의 효과 극대화 등의 노력이 필요

첫째, (내수 진작) 재정 및 통화 확대의 거시정책과 투자와 소비에 대한 직접적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미시정책을 병행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 재정 지출 확대와 저금리 기조 지속의 정책 조합을 통해 유효 수요 확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경기 회복의 지속력 확보는 기업 투자 확대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보다 가속화하여 기업 활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한편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의 연장, 상품군별 제조기업과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 추진 등을 통해 소비심리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임

둘째, (외수 확보) FTA의 활용도 제고 및 한류 연계 수출 확대를 통해 외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및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및 한-EU FTA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나아가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직접적 진출을 도모하여 대 중국 수출 침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한편 부족한 내수 견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한류 3.0 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외국인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며, 한류 확산이 한국산 소비재의 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와 '문화소비재'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함

**셋째, (건설업의 경기 급랭 방지)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외 수요 확보 노력 등을 통해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 2016년에는 일시적인 주택 공급과잉, 금리 상승기대로 인한 구매심리 악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고 강한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보이며, 연쇄 반응을 통해 경제의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 모두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또한 토목 부문에서 SOC 예산의 조기집행을 제고, 민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기의 급랭 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임

**넷째,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 산업화) 주력 산업의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의 조기 발굴 및 산업화가 절실하다.**

- 최근 주력 산업 상실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수요 부진보다 경쟁력 급락에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수출에서 혁신으로 이동시키고 기업은 R&D, 제조, 운송, 마케팅 등 모든 경영 활동의 목표를 생산성에 맞추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함
- 특히 IT 산업의 성장 정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IT 제조업에서는 「제조업

혁신 3.0」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수용의지가 필요하며, IT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대형화,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새로운 주력 산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모두가 추가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을 중단하고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다양한 신성장 후보군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 검토를 통해, 우리가 선점효과를 가질 수 있고 상당 기간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다섯째, (대외 리스크 관리) 대외 리스크가 교역 및 금융 경로를 통해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한·중·일, 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국제분업구조를 고려해 볼 때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아시아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하고 차이나 리스크 발생시의 파급 경로와 한국과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아시아 신흥국 중 일부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서의 투기 자금의 이동과 시장 변동성 변화에 대한 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여섯째, (재정 집행의 효과 극대화) 재정의 적시성(適時性, proper timing) 확보 및 집중도(集束度, focusing) 제고를 통해 공공 부문의 경기조절 능력을 높여야 한다.**

- 경기 회복의 강건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2016년 상반기중에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끌어 올려 경기 회복세가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한 사업 조기 발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 교육, 보육 분야 중에서 민간 소비 구매력 확충과 직결된 항목의 재정집행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재정 지출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민간 부문으로 그 긍정적 효과로 파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부록】 2016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

---

① 건설업 .....	20
② ICT제조업 .....	23
③ 자동차산업 .....	26
④ 철강산업 .....	29
⑤ 석유화학산업 .....	32
⑥ 조선업 .....	35
⑦ 기계산업 .....	38

① 건설업

SOC 예산의 축소, 부동산 시장 공급 과다 등으로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

- (2015년 경기 동향) 건설기성액 기준으로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수주액도 건축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 확대되는 모습
- (건설기성) 건설기성액은 2015년 3/4분기까지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5년 3/4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
  - 건설기성액은 2015년 3/4분기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015년 3/4분기에 들어 증가세로 반전됨
  - 부문별로는 건축부문 기성액은 2015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였으나 토목부문 기성액은 같은 기간 3.7% 감소함
- (건설수주) 건설수주액은 건축부문 수주액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토목부문도 회복세로 전환하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
  - 건설수주액은 2015년 3/4분기까지 95.7조 원으로 전년동기비 50.9% 증가함
  - 부문별로는 건축부문 수주액이 2015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53.6%, 토목부문 수주액도 42.9% 증가함<sup>11)</sup>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공종별 건설수주액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주 : 1) 건설기성액은 불변금액,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 기준

2)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11) 토목부문의 가파른 증가세는 민간부문에서 2015년 3/4분기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결과임.



- (2016년 전망) SOC 예산 축소, 부동산 시장 공급 과다 등으로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
- (공공·토목) 2016년 정부의 SOC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토목부문 수주액은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6년 SOC 예산은 기존 감축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6% 감소한 23.3조 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5년 추경 예산을 통한 공공부문의 도로, 발전 등 SOC에 대한 수주와 민간 부문의 대규모 토목 수주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6년 토목부문의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SOC예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토목부문 수주액 급감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음
- (민간·건축) 미국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와 주거용 건축부문의 과잉 공급 해소가 지연되면서 민간·건축부문 수주액은 둔화세 예상
  - 2016년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 증대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 2015년에 과도하게 증가한 주거용 건축부문 과잉공급 물량의 해소가 지연되면서 2016년 민간·건축부문 수주액은 둔화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기준)>

(단위 : 조 원)

		2014	2015(E)	2016(E)
주체별	공공	26.5 ( 7%)	28.2 ( 6%)	26.5 (△ 6%)
	민간	61.3 ( 20%)	80.9 ( 32%)	68.8 (△15%)
공종별	토목	22.2 (△ 4%)	29.4 ( 33%)	25.0 (△15%)
	건축	65.6 ( 25%)	79.6 ( 21%)	70.3 (△12%)
전체		87.8 ( 16%)	109.1 ( 25%)	95.3 (△13%)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2)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은 제외됨.

- (주요 현안) 과도한 가계부채로 부동산 수요 위축, 해외건설 산업의 재정비 및 녹색 건설부문 사업 기회 확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과도한 가계부채로 부동산 수요 위축) 2015년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등이 신규 수요 위축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우려
    - 2015년 국내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공급의 급감과 신규분양의 활황으로 전세자금 대출 및 신규분양 집단대출 형태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음<sup>12)</sup>
    - 향후 국내외 거시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전세, 월세, 매매시장 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해외건설 부문의 재정비) 해외건설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해외건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있는 상황<sup>13)</sup>에서 세계경기의 위축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부문의 위기가 확대됨
    -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미청구공사금액<sup>14)</sup>이 17조 원에 육박하고,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건설 부문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주지역 다변화, 저가수주방지, 구조조정 등 재정비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녹색 건설부문 사업 기회 확대) 201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녹색 건설 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감축목표를 공식 선언하였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감축 계획에 진입함
    - 2020년 기준 가장 감축률이 높은 부문은 수송(34.3%)이며, 건물(26.9%), 전환(26.7%), 산업(18.2%) 등이 뒤를 이음
    - 건물부문에 높은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녹색 건설부문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sup>15)</sup>

12) 국내 가계부채는 2012년 1,000조 원 상회후 2015년 2/4분기까지 1,130조 원로 증가함.

13) 2014년 기준 해외건설수주는 약 660억불로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국내건설수주와 평균환율로 계산했을 때 전체 건설수주의 약 43.6%를 차지함.

14) 미청구공사금액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하는 원가 상승,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지급 지연 혹은 공사하자로 인한 지급유예 등으로 주로 발생함.

15) 정부는 신규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관련 허가기준과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 및 녹색건축 저변확대 정책 등을 계획하고 있음.

② ICT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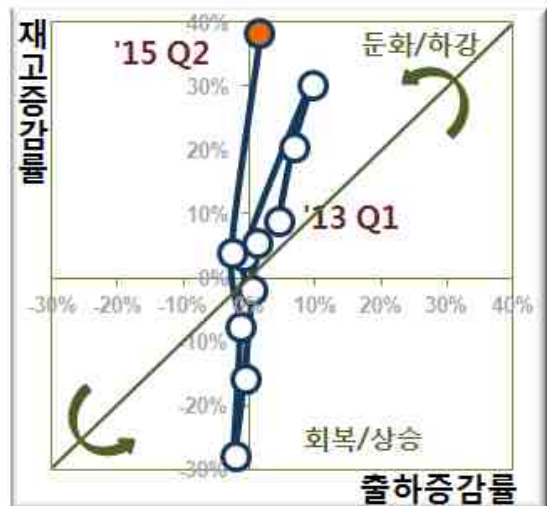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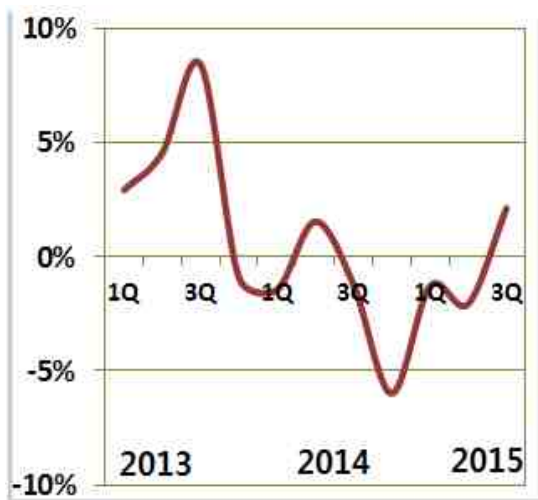
글로벌 수요 확대로 생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경기 불확실성 증가, 해외 업체와의 경쟁 심화, 신성장 품목 부재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 전망

- (2015년 경기 동향) 대외 경기 회복 지연과 경쟁 심화에 따른 생산 정체가 지속되면서 불황국면 진입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은 반등하고 있으나 재고가 늘어나면서 재고-출하 사이클 상 불황 국면에 위치
    -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4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0%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어 2015년에는 3/4분기에 2.1%로 반등함
    -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는 생산이 증가하는 만큼 출하되지 않으면서 재고 증가율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며 불황 국면에 위치함
  - (부문별 경기) 세계 경기 회복지연 속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해외로의 공장 이전 등으로 전체 ICT 제조업의 성장은 둔화
    - D램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해외 생산 거점向 휴대폰 부분품 등에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DTV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함

<IC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16년 전망) 글로벌 수요 확대로 생산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나, 경기 불확실성 증가, 해외 업체와의 경쟁 심화, 신성장 품목 부재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 전망
  - (경기 여건) 미국, 아세안 국가 등의 성장 속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불확실성 또한 점증
    - 더욱이 경기 둔화에 따른 재고 부담을 해소하고 시장 성숙 상황 하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업체 간의 경쟁 심화가 예상됨
  - (생산, 수출) 2015년도 대비 생산과 수출 모두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해외생산 확대, 신규 성장 동력의 부재와 함께 중국 업체의 거센 추격으로 인해 2016년 ICT제조업의 생산은 1% 증가, 수출은 2% 성장에 머물 전망임
  - (품목별) 주력 품목 대부분이 수요 약세를 겪는데다가 공격적 경영에 나서고 있는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
    - 반도체 : 국내 업체의 견고한 글로벌 시장 기반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DRAM,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 부문의 약세로 성장 정체됨
    - 디스플레이 패널: 대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일본 업체 등의 공격적 생산에 따른 경쟁 치열로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휴대폰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숙 심화와 중국 업체의 경쟁력 급부상으로 인해 성장 감소가 우려됨

<ICT제조업 전망>

	2014	2015(E)	2016(E)
생 산 (조 원)	331 (2%)	324 (-2%)	327 (1%)
수 출 (억 달러)	1,739 (2%)	1,740 (0%)	1,775 (2%)
수 입 (억 달러)	880 (8%)	915 (4%)	961 (5%)

자료 : 잠정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CT제조업은 정보통신방송기기 품목을 의미.

- (주요 현안) 신성장 품목 확보, 전략 시장 이동, 디지털 생태계 주도권 선점 이 ICT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신성장 품목 확보) 스마트 워치, 스마트 카, 금융·서비스 등 IoT 기반 제품과 스마트 공장 등 ICT를 활용한 공정 등 신성장 품목 확보에 주력
    - 스마트 폰의 뒤를 이을 신성장 품목으로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가상현실, 자동차 관련 제조 및 서비스사업, 스마트 결제 등이 부상함
    -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확대로 새롭고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의 창출이 기대됨
    - 또한, 스마트 공장, O2O(on-line to off-line) 사업,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 등 ICT를 활용한 공정<sup>16)</sup> 및 제품 혁신도 가속화될 것임
  - (전략 시장 이동) 중국 시장을 대신할 거대 신흥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품 개발로 글로벌 사업 전략을 전환
    -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의 급부상 등으로 글로벌 IT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탈출하고 새로운 거대 신흥시장 개발에 주력중임
    - 대안 시장으로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시장이 꼽히고 있으며, 이중 세계 3위의 시장 규모를 갖춘 인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신흥시장에 특화된 스마트폰 개발과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 등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업체, 현지 업체간의 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가 전망됨
  - (디지털 생태계 주도권 경쟁) 업종 불문하고 디지털 비즈니스 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생태계 구축이 치열하게 전개
    - 시장 주도권을 지닌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위치 선점을 위해 동종업체(제조업체, 서비스업체), ICT 업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 컨소시엄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핵심 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한 M&A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16) ICT 업체는 물론 전통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까지 ICT 기반의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이 부각 될 것임.

③ 자동차산업

수출은 미국 경기 회복 지속, 폭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고 내수도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판매 증가세는 이어갈 전망

○ (2015년 동향) 자동차산업은 내수 및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이며 회복세를 시현

- (생산 및 재고·출하) 자동차 생산 및 출하는 2015년 1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2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회복 국면에 진입

-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지수 증가율은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2%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어 3/4분기에는 4.8%로 상승함
-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 출하증감률 역시 2/4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되며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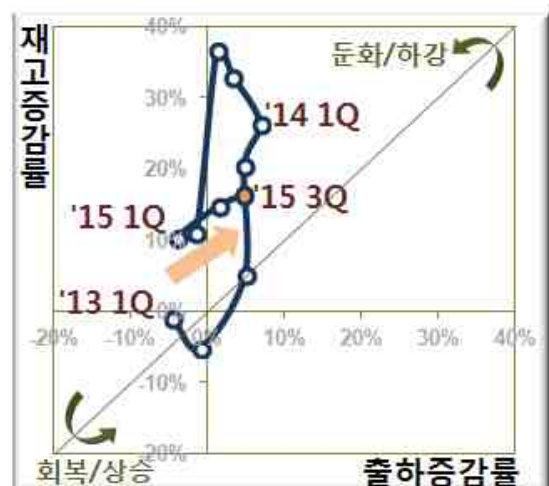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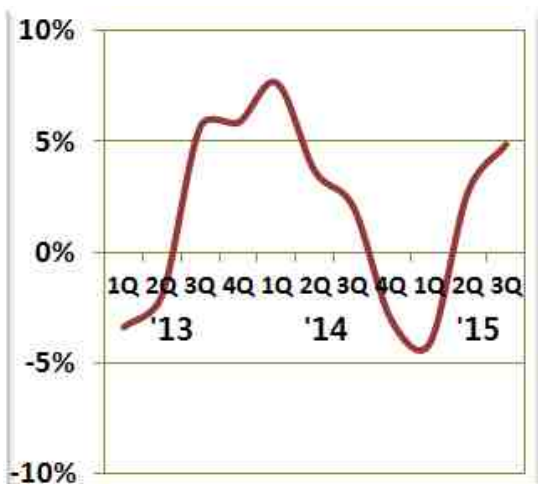
- (수출) 글로벌 경기 침체, 엔저 영향 등으로 자동차 수출은 1/4분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이후 소폭 개선

- 자동차 수출 대수 증가율은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8%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폭이 완화되어 3/4분기에는 -0.7%까지 회복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6년 전망) 수출은 미국 경기 회복 지속, 폭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고 내수도 판매 증가세는 이어갈 전망

- (수출 감소세 탈피) 미국 경기 회복, 폭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 등으로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2016년 미국 자동차 판매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영향으로 해외시장에서 독일차에 비해 미국, 일본 및 국산 브랜드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됨
- 다만, 중국, EU 및 신흥국 경제의 리스크 상존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수요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내수 판매 증가)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비여력 확충이 국내 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자동차 내수 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 미흡, 경기 반등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수입차는 폭스바겐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14	2015(E)	2016(E)
생 산 (만대)	452 (0%)	461 (2%)	470 (2%)
내 수 (만대)	146 (6%)	158 (8%)	165 (4%)
수 출 (만대)	306 (△1%)	302 (△1%)	305 (1%)
수 입 (만대)	27 (39%)	35 (30%)	44 (27%)

자료 :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내수는 국산차 출고 기준, 수출·수입은 통관 기준.

- (주요 현안) 미래차 주도권 경쟁, SUV의 독주,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미래차 주도권 경쟁) 친환경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이 산업간 경계를 붕괴시킬 것으로 전망
    -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완성차업계, 정유업계, IT 및 전력업계 등은 충전 인프라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음
    - 최근 주목받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sup>17)</sup>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진화에 따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의 ‘카플레이’ 등 차량용 운영체제(OS)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가 예상됨
  - (SUV의 독주) 저유가 기조 지속, 여가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SUV 독주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고유가 시기에 소형 승용차로 집중되었던 수요가 저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의 영향으로 SUV로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보임
    - 고연비·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와는 별개로 저연비·비친환경적인 SUV 차량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등 신흥시장 뿐 아니라 SUV의 불모지였던 유럽 시장에서도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SUV 라인업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 세계 2위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의 점유율 하락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
    -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단기적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됨
    - 특히,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 시장과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던 미국 시장에서의 위축은 경쟁구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
    - 폭스바겐 사태 이후 단기적으로 타 브랜드의 디젤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디젤 엔진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함

17)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은 길 안내, 교통정보 등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오락거리를 뜻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통합 시스템을 의미함.



④ 철강산업

2015년 수준 정도의 국내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불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경기 동향) 생산,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불황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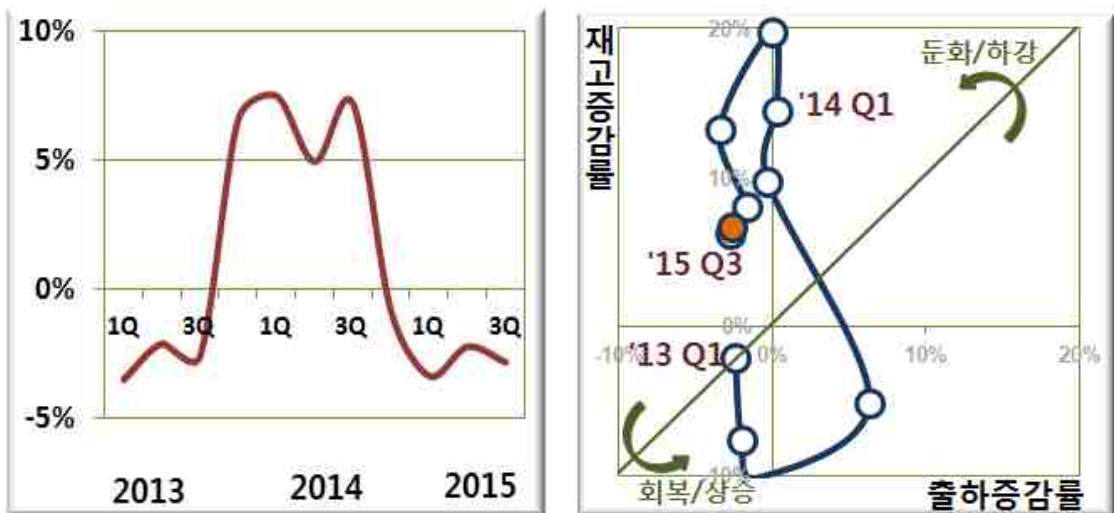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재고·출하 사이클 상 불황 국면이 지속

- 철강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4년 4/4분기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이후 2015년 3/4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임
- 철강 출하도 감소하는 반면 재고는 빠르게 증가하여 재고·출하 사이클상 불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음

- (수출) 중국 경기 둔화와 가격 하락세로 철강수출은 물량, 금액 모두 감소

- 2015년 3/4분기 누적 철강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였고, 철강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금액 기준으로도 -11.2% 기록함<sup>18)</sup>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18) MTI코드 61 기준, 한국무역협회.

- (2016년 전망) 2015년 수준 정도의 국내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불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수요 전년수준 유지) 내수 수요는 소폭 증가하나, 주요 신흥국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총수요는 전년 수준에 그칠 전망
    - 건설경기 성장세 둔화로 건설向 수요 증대는 제한적이나 조선 및 자동차向 수요는 소폭 증가하여 2016년 내수 성장세는 2% 대를 기록할 전망임
    -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감소) 내수용 철강에 대한 수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생산은 감소하여 총공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철강 수요 둔화와 철강산업 내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 활동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철강재 유통가격 하락으로 내수용 철강의 중국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수입은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철강산업 전망>

(단위: 만 톤)

	2014	2015(E)	2016(E)
<b>총수요</b>	8,779 (8%)	8,800 (0%)	8,800 (0%)
내수	5,552 (7%)	5,600 (1%)	5,700 (2%)
수출	3,227 (11%)	3,200 (△2%)	3,100 (△3%)
<b>총공급</b>	9,686 (9%)	9,500 (△2%)	9,400 (△1%)
생산	7,411 (7%)	7,300 (△1%)	7,100 (△3%)
수입	2,275 (17%)	2,200 (△3%)	2,300 (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

- (주요 현안) 국산 자재 우선구매 제도, 철강수요구조의 변화,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 지속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
- (국산 자재 우선구매 제도) 공공부문 건설에서 국산 철강재의 우선사용계약 체결과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예상
    - 미국·중국 등 세계 30여 개국은 공공발주 물량에서 자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중임
    - 한국도 공공부문 자국제품 우선구매 제도(Buy Korea) 입법 발의<sup>19)</sup>를 통해, 자국 제품의 사용 확대 및 저급 수입 제품의 사용 축소 기대됨
    - 이는 세계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조치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공급과잉 등으로 불황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의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됨
  - (철강수요구조의 변화) 철강수요산업이 소재의 고급·고기능화, 제품 차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철강제품 수요 변화 야기<sup>20)</sup>
    - 고기능화, 경량화, 고강도화를 요구했던 철강수요산업은 친환경화, 인체친화성, 장수명화, 리사이클링 용이성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됨
    - 자동차 및 전자 산업 등을 중심으로 특수강을 필요로 하는 요구가 확대되면서 철강산업 내 기술혁신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 특히, 글로벌 철강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적 추격 및 시장 확대로 국내 철강산업의 기술고도화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임
  -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 지속) 철강수요 감소, 철강 유통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과잉생산 체제 지속될 전망
    - 중국내 철강 수요가 감소되고, 세계 철강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과잉생산설비 및 철강 공급 과잉으로 철강 유통가격이 하락함
    - 중국의 철강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한 과잉생산 혹은 생산량 유지 및 저가 전략을 지속하여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19) 2015년 8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 철강산업의 감응도 계수는 자동차 0.111, 선박 0.203, 건축 0.175, 토목 0.254로, 다른 어느 산업보다 산업연관효과가 높음. 감응도 계수란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의 상대적 지수를 의미.

⑤ 석유화학산업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수출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국내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내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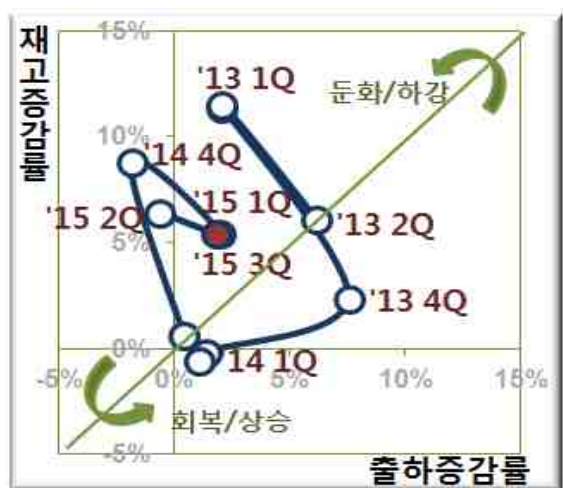
○ (2015년 경기 동향)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인 업황 회복을 제한

- (생산 및 재고·출하) 하반기 들어 생산과 출하증가율이 상승하고 재고증가율은 하락하여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회복 정도는 미약
  -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5년 2/4분기에 -1.0%를 기록했지만, 3/4분기에는 1.8%를 기록하여 플러스로 전환됨
  - 하반기 들어 소폭 개선되었지만, 재고증가율이 출하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요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수출)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對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
  -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015년 3/4분기까지 290억 달러로 전년동기간의 365억 달러에 비해서 20.5% 감소함
  - 특히, 중국에 대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165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21.0% 감소하여 수출 부진을 주도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6년 전망)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수출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국내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내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완만한 내수 회복) 경기 둔화가 완화되면서 2015년에 비해 내수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는 못할 전망

- 국내 경기 둔화 완화로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요 전방산업들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내수 부문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느리게 소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 부진 지속) 저유가 지속으로 국산품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나프타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은 원가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됨
- 對 중국 수출 의존도(석유화학제품 총수출의 약 50%)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 수출 부진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중국의 자급률(내수/생산) 상승 노력 가속화, 중동에서 생산한 저가 제품의 중국 수출 확대로 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석유화학산업 전망>

구 분	2014	2015(E)	2016(E)
생 산 (만 톤)	2,128 (△2%)	2,115 (△1%)	2,110 ( 0%)
수 출 (만 톤)	1,175 (△2%)	1,145 (△3%)	1,120 (△2%)
수 입 (만 톤)	103 ( 3%)	101 (△1%)	100 (△1%)
내 수 (만 톤)	1,027 (△5%)	1,050 ( 2%)	1,080 ( 3%)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 (주요 현안) 한·중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모색, 미래 경쟁 전략 수립, 친환경 고부가가치 개발 역량 확충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
  - (한·중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모색)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 요인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모색
    - 일부 석유화학제품은 관세가 협정 발효로부터 10~20년 이후에 철폐될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 한·중 FTA는 국내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국산품의 경쟁력을 따라잡으려는 중국업체들의 노력에 대응하여, 국내업체들은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석유화학 시장은 중국업체에게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되므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
  - (미래 경쟁 전략 수립) 기업들은 저렴한 원료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미래 경쟁 전략 수립에도 집중
    - 저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셰일가스, 석탄 등 저렴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중요해짐
    - 나프타를 이용한 국내 생산에서 벗어나 중동이나 북미 등 저렴한 원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진출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도 고려되고 있음
    - 특히,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성장 여력이 높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고 마케팅 등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신기술 개발 역량 확보)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국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가 예상됨
    -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범용제품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고, 모방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대한 R&D 투자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환경문제를 기업의 전사적 전략과 연계하여 수익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개발이 활발해 질 것임
    -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화학의 경우 지속가능성장이 이슈화되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⑥ 조선업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 건조 시장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신규 수주와 수출 단가 등에서 침체 국면 지속이 예상

○ (2015년 경기 동향) 조선업은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신규수주도 부진

- (선박 생산) 조선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생산 감소세가 이어지며 침체가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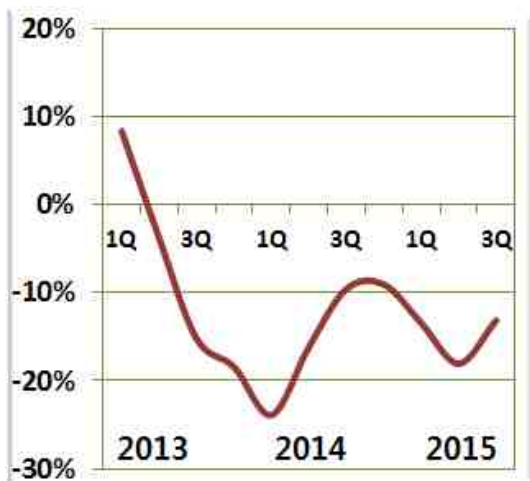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는 2015년 2분기 들어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함

- (선박 수주) 국내조선사의 신규수주도 회복되지 못하면서 수주잔량도 감소

· 신규수주 규모는 2015년 3분기까지 877만 CGT<sup>21)</sup>로 전년동기간 899.7만 CGT보다 약 2.4% 감소함

· 수주잔량은 2015년 1분기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동 분기말 대비 2.3% 감소한 3,329만 CGT를 기록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국내조선사의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Clarkson.  
 주 :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1)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16년 전망)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 건조시장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신규 수주와 수출 단가 등에서 침체 국면 지속이 예상
  - (신규 수주 소폭 증가) 2016년 신규 수주량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2016년 세계 경제 회복으로 글로벌 물동량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선박 건조시장 부진,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지속으로 수주량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2016년 신규 수주량은 2015년보다 소폭 증가한 1,195만 CGT가 예상되나 2013년(1,875만 CGT), 2014년(1,261만 CGT)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건조 단가 개선 미흡) 건조 단가는 2016년에도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선박 건조시장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미국 금리인상, 유가 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건조 단가는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건조 단가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수출 소폭 확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과 더불어 선가 상승기에 수주된 물량들이 인도되면서 선박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 드릴십,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와 선가 상승기에 수주된 물량이 인도되어 선박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조선업 전망 >

	2014	2015(E)	2016(E)
신규수주량 (만 CGT)	1,261 (△33%)	1,160 (△8%)	1,195 (3%)
신조선가지수 (p)	138 (5p)	133 (△5p)	134 (1p)
수출규모 (억 달러)	399 (7%)	415 (4%)	427 (3%)

자료 : 신규수주량과 신조선가지수는 Clarkson, 수출규모는 전체 선박수출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저유가의 장기화 가능성, 조선사의 수익성 회복 노력, 중국 조선업의 질적 성장이 2016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저유가의 장기화)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해양플랜트 발주 감소 및 에코쉽 수주 부진 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원유생산량 증가, 신흥국 수요 부족, 셰일오일 생산 등의 영향으로 수요 대비 공급 우위가 이어져 저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 전망 기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2016년에도 배럴당 50달러대<sup>22)</sup>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유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해양플랜트 발주 및 에코쉽 수주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선부문의 수주경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수익성 회복 노력) 국내 조선사는 과거 저가 수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2016년에는 수익성 확보,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
    - 과거 조선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에 치중하였으나 2016년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수주 정책,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비주력 자회사 및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펼칠 것으로 보임
    - 수익성 회복 정책을 펼치는 국내 조선사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에는 비용 측면에서, 파이낸싱 조건에서는 일본에 뒤지고 있어 삼국간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음
  - (중국 조선업의 질적 성장) 최근 양적인 측면에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질적인 수준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
    - 중국 조선업은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선박기지 투자와 안정적인 자국선박 수요 등으로 신규수주,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국 조선업을 추월함
    - 중국 조선업은 아직까지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국내 조선사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투자 등에 힘입어 질적인 수준을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됨

22) EIA는 국제유가를 2015년 54.1달러, 2016년 58.6달러, CERA는 2015년 52.2달러, 2016년 55.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⑦ 기계산업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 수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 및 수출이 정체되고 수입 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경기 동향) 대내외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계 수요 부진으로 기계 산업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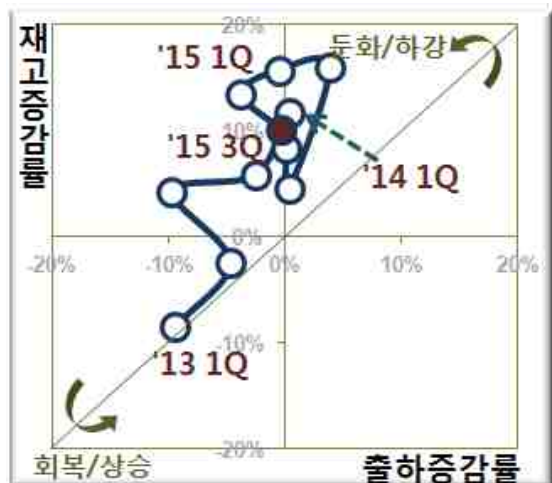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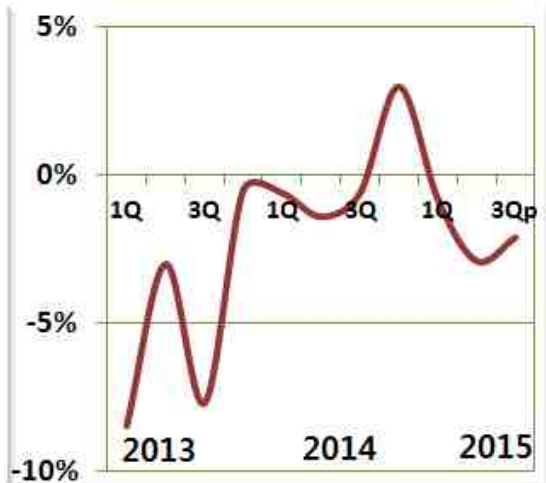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2015년 들어 국내 기계 생산이 재차 감소하고 재고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고·출하 사이클 상 경기 둔화가 지속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2015년 1~8월 -7.6%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수요 부진과 원화의 상대적 강세로 기계 생산은 2015년 들어 감소세가 지속중임
- 또한, 기계의 출하 증가율도 2015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재고는 크게 증가하면서 기계산업 경기는 계속 둔화되고 있음

- (수출입) 미국 경기 회복세 약화, 중국 경기 둔화 및 엔저 영향의 누적으로 수출은 정체되고 수입은 감소세를 보임

- 기계산업 중 일반기계의 수출은 2015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간 대비 0.7% 증가했고 수입은 -2.7% 감소함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6년 전망)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 수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 및 수출이 정체되고 수입 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생산 정체) 2016년 대내외 경기 회복 지연으로 설비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하면서 기계 생산은 정체될 것임
    - 중국 리스크의 아시아로의 확산,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들이 산적해 있고 내수 경기 회복도 더딜 것으로 보여 기계 수요는 정체될 것임
    - 대내외 수요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동기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계산업 생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의 기업투자 유인 정책과 로봇, 기계와 ICT 융합 확산 등으로 기계 전환 수요는 꾸준히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보합 유지)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 둔화세 지속과 엔화·유로화 약세가 수출 감소로 작용하나 러시아 등 신시장 발굴로 수출은 보합 유지
    -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엔저·유로화 약세로 인한 이들 지역에서의 가격경쟁력 하락 등이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유럽의 對러시아 제재 지속으로 인한 러시아 시장 확대 등 신시장 확대 노력으로 수출은 전년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수입 감소 지속) 대내외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생산 정체와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기계 수입 감소는 지속될 전망

<기계산업 전망>

	2014	2015(E)	2016(E)
생 산 (조 원)	101 (1%)	102 (1%)	103 (1%)
수 출 (억 달러)	450 (4%)	453 (1%)	455 (0%)
수 입 (억 달러)	359 (3%)	353 (△2%)	348 (△1%)

자료 :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일반기계 기준이며,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2011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품목분류 개편으로 과거 수치와 동일하지 않음.

- (주요 현안) '스마트 머신' 확산,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확보 및 기계산업의 서비스화 촉진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스마트 머신' 확산 기대) 기계와 ICT 융합을 뛰어넘어 자율적 분석과 대응이 가능한 인지 기능까지 결합된 스마트 머신 시장 확대가 기대
    - 스마트 머신(Smart Machine)<sup>23)</sup>은 스스로 주어진 환경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의미하며 인공지능,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한 인지가 탑재되어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 우리 정부도 2014년 이후 제조업 혁신 3.0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과 3D 프린팅, 로봇, 센서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한·중 FTA 활용으로 중국 내수시장 확보) 한·중 FTA 발효로 기계제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기업 전략도 강화될 전망
    - 한국의 대 중국 기계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계류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2년 7.8%에서 2015년 5월 기준 11.4% 확대된 바, FTA 발효로 기계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시장 확대가 예상됨
    - 특히, 한·중 FTA 발효시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치 등 중국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확보 전략이 강화될 것임
  - ('기계산업 서비스화' 촉진) 한국기계거래소를 통한 중고 기계의 거래 활성화 등이 추진되면서 국내 기계산업의 서비스화가 본격화 될 예정
    - 정부는 2012년 제조 부문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부문의 육성으로 기계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기계거래소' 설립을 추진했고 2015년 11월 정식으로 개설됨
    - 한국기계거래소를 통해 중고 기계의 거래활성화, 유통시장의 선진화 및 수출 촉진 등 기계산업의 서비스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HRI**

23) Research and Market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시장 규모는 2013~2018년까지 연평균 19.7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016년 산업 전망 참여 연구진

- 【총괄】 주원 이사대우 (juwon@hri.co.kr, 02-2072-6235)
- 【건설】 오준범 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 【ICT 제조】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johnlee@hri.co.kr, 02-2072-6231)
- 【자동차】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02-2072-6237)
- 【철강】 김광석 선임연구원 (gskim@hri.co.kr, 02-2072-6215)
- 【석유화학】 안중기 선임연구원 (joonggiahn@hri.co.kr, 02-2072-6242)
- 【조선】 김천구 선임연구원 (ck1009@hri.co.kr, 02-2072-6211)
- 【기계】 조호정 연구위원 (chjss@hri.co.kr, 02-2072-6217)